

오늘날의 불교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 방대한 경전과 주석 그리고 복잡한 이론을 구축한 학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래 붓다의 가르침은 해탈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매우 단순하고 실천적인 것이었다. 붓다는 추상적 토론의 유용(有用)함을 비유하기를, 인간이 화살을 쏘며 맞았는데도, 그것을 쏘는 생각을 않고 그 상처의 원인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붓다는 현학적인 토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화살 쏘는 시급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불렀다.

또한 붓다는 우주와 유한한지 무한한지, 창조되었는지 아닌지 등을 물어오는 사탄에게 대담대신 장남들이 코끼리를

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엠피도클레스는 그의 <단편>에서, "나는 남자도 되어 보았고, 여자도 되어 보았다. 나는 나무였고, 새였으며, 물속에서 고기로도 살아 보았다"고 기록했다. 특히 그는 물속에서 육지를 보고 매우 동경했으며, 육지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공화국> 제10권에서 어느 상처받은 병사가 천국과 지옥을 순례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영혼과 만났는데, 그 시(詩)와 음악의 신은 백조의 몸을 빌어 환생해 있었다 한다.

트로이 전쟁을 지휘했던 아르고스의 왕 아가메논은 독수리로 환생했고, 율리시스는 평범한 무명씨(無名氏)가 되어



유회에 대한 믿음은 인도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도 매우 강했다. 사진은 손희교수의 평면화 '유회'.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윤 회 ①

'해탈 우선' 붓다 독화살 비유로 일축

힌두경전·유대 신비주의·서양지성들 인정 경향

"유회하는 생은 순차적인 꿈과 같고 침대를 옮겨 다니면서 자는 것과 같다"

플로티누스

만지는 비유를 들었다. 우주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한 부분만을 만지고서 거대한 코끼리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교(구약)를 전제로 하듯이, 붓다의 가르침도 힌두교(베다)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유회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한다. 현대인들에게 다소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회설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온 것이다.

그리스에서 유회설을 주창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였다. 디오게네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자기의 전생(前身)을 기억해 내는 능력을 헤르메스(그리스 신화에서의 언어의 창조신, 제우스의 아들로 신과 인간사이의 통역을 맡음)로부터 받았노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헤르모티모라고 말하며, 어느 신전에서 당시 전쟁에서 헤르모티모가 사용했던 방패를 찾아냈다.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하나였던 오르페우스교(Orphism)에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가르쳤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유회의 주기를 천년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브라만신의 잠자는 시간인 일겁(一劫)의 천이백만년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스케일에 지나지 않는다. 3세기경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유회하는 생들은 순차적인 꿈과 같은 것이다. 혹은 침대를 옮겨 다니면서 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저는 영국과 프랑스 북부지방에서 살았던 고대(古代) 켈트족의 사제계급인 드루이족의 연구에 몰두했는데, 이들은 영혼의 불멸과 유회 전생(轉生)을 믿었다. 다음의 6세기경의 영국 시는 그 사상의 편린을 보여준다.

나는 칼날이었다
나는 강의 물방울이었다
나는 빛나는 별이었다
나는 책의 글자였다
나는 최초의 책이었다
나는 등불의 빛이었다
나는 물 위의 다리였다
나는 독수리처럼 여행하였다
나는 하프의 줄이었다

"나는 남자로도 여자로도 태어났었고 나무였고 새였으며 울고기로도 살았다"

엠피도클레스

나는 마법에 걸려 일년동안 물거품속에 갇혀 있었다

유대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유회를 '길굴(Gilgul, 回歸)과 '이부르(Ibur, 回生)'로 구분한다. 길굴에 대해서 이사쿠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 폭포를 만나면 그 고통은 극에 달한다" 이부르는, 조상이나 스승의 영혼이 후손의 영혼에 스며들어가 그를 혼란시키고 기를 붙여 넣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인들은 유회를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누법전에 이런 말이 있다. "승려를 살해한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개, 돼지, 말, 낙타, 소, 염소, 양, 들짐승, 새 혹은 풀카자(카스트 계급의 최하위 천민)로 태어난다" 또, "비단옷을 입은 사람은 머추리로, 아마포(亞麻布)를 입은 사람은 개구리로, 무명옷을 입은 사람은 백으로 태어난다. 향수를 입은 사람은 새암쥐로 태어나고 박학을 입은 사람은 칠면조로, 악인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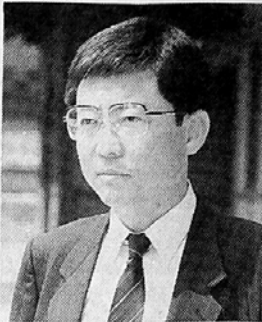
식을 입은 사람은 고슴도치로, 날곡식을 입은 사람은 돼지로, 소를 입은 사람은 악어로 태어난다. 불을 입은 사람은 거위로, 집기를 입은 사람은 꿀벌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붉은 썩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이 다른 인간이나 동물 혹은 식물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은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불테르는 유회설에 대해 식이요법적인 가설을 세웠다. 브라만계급의 지도자들은 더운 인도에서 육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랍지방에서도 식종족과 기생충으로 인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 불테르는 소에 대한 숭배도, 인도에서는 고기보다 우유가 훨씬 더 소중한 이유라고 추측했다.

번역 : 김흥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광복 (소설가)



최근 아주 게을러졌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성가시지만 하다. 가까이 지내는 영화감독 한 분과 천안 광덕산(일명 태화산)에 가자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천안 광덕산은 언고개 꽤 깊은 산이다. 광덕산에는 저 유명한 광덕사가 있고, 그 일주위를 둘러서면 바로 안양암이 나온다. 이 안양암은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으로서 최근까지 불사를 계속해 왔다. 아마 지금도 불사가 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몇 해 전 불이었다. 나는 광덕사 아래 한 민가에서 기숙하며 세월을 축낸 적이 있었다. 집을 나설 때의 명분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장편소설을 쓴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달포 이상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무위도식하는 꼴이 되었다. 때에는 글을 써보겠노라고 열심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글은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엉뚱한 잡념들만 무수히 쏟아졌

산사체험 작품에 그대로 녹여 "봄 가기전에 광덕산 찾아 잡념 씻어야겠다"

다. 그뿐 아니라 마냥 놀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것이었다.

글 쓰는 일은 바로 생업이 아닌가. 가장으로서, 생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줄 변히 알면서도 일에 전념하지 못한 채 늘 생각만 했던 것이다.



니 자연 가족들의 생계가 궁핍할 때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불현듯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생활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깨를 짓눌러왔다. 그리하여 그 해 봄이 다가가기 전에 보따리를 싸잡고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이 다른 데로 기울면 일이란 애당초 글러버리게 마련 아닌가. 나는 거의 매일이如此 하던 일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 다녔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들락거린 곳이 광덕사 경내와 안양암이었다. 광덕사 경내의 천불전 앞 다리목은 내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었다. 그 다리목에 앉아 주위의 숲과 산봉우리들을 일별할라치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 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안양암에 들르곤 했다. 안양암 주지스님과는 그 전에 인사를 드린 바 있어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이웃이었던 양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허물없이 드나들 수가 있었다.

특히 안양암에는 기막힌 차가 있다. 그 차는, 어린 승승과 설탕을 버무려 땅속에 묻었다. 내용은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와 달리, 도리어 술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차종으로 석 잔만 마시면 몸이 얼큰해 지는데, 그 맛이 천하일품이라 안양암에 들를 때마다 그 차를 얻어 마시곤 하였다.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르러 급기야 발통이 걸려 일다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장편소설 4권을 포함하여 중편 2편, 단편 5편 등 막대한 양의 원고를 썼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꾸준한 작품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올해에 쓴 작품들에는 광덕산에서 지낼 때 보고 느꼈던 일들이 글 속에 응해되어 나왔다. 예컨대 3권짜리 장편소설 <이혼시대>는 물론, 올해 달고한 장편소설 <구름잡기>를 비롯하여 단편 '건길' '낮달' '산행'에 이르기까지 그때의 산 체험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게으름을 피웠던 그 무렵에도 내 가슴 속에는 또다른 작품들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최근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머릿속에는 엉뚱한 잡념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잡념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봄이 가기 전에 꼭 광덕산에 다녀오리라 거듭 다짐하고 있다.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撰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서!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비바리밀경 李東煥 역·釋能嘉 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인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煥 역·釋能嘉 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撰
4. 육묘법문 李東煥 역·釋能嘉 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간
6. 반야경 근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 書 專 門 出 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중 국 어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주민등록등본 1통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0명	•반명함판 사진 5매	
신문방송과(불교포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대학,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 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교계열
-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부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